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정귀임¹, 이경수², 정하윤^{3*}

¹고신대학교 간호대학

²진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3*}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Personality of Freshman Nursing Students

Kwuya-Im Jung¹, Kyung-Soo Lee², Ha-Yun Jung^{3*}

¹Dept. of Nursing, Kosin University

²Dep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Jinju Health College

^{3*}Dep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Received March 5, 2019; Revised March 30, 2019; Accepted April 25, 2019)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personality.

Methods. Participants were 237 nursing students who studied in 2 nursing colleges in B metropolitan.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April 1 to 12, 2019. All of this data is analyzed by Frequencies,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 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3.0 program.

Results. First, the mean score of the personality and self-esteem were 4.03 ± 0.57 and 3.87 ± 0.84 points. Second, personal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perceived interpersonal relations, academic stress, and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Third, the influencing factor in personality of participants was self-esteem, adjusted $R^2 = .188 (p < .001)$.

Conclusions. Development of guidance program to improve level of personality and self-esteem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is recommended.

Key Words : Personality, Self-Esteem, Freshmen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jsy760809@hanmail.net

1. 서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 살인 및 각종 범죄 등 개인의 마비된 인성 때문에 사회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생겨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는 학생들 간의 욕설, 학교 부적응 행동,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의 부재 등의 문제점도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와 학교의 인성교육 부재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여론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요구되고 있다¹⁾²⁾. 이렇듯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정부는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시간을 정해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 신규제정 2015. 1. 20)」을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만연된 경쟁적 풍토와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인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높다³⁾.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범국가 차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스스로 행동하며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에 있으며,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를 해야 하는 대학생에게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으로서 ‘인성’을 다루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⁴⁾. 그 중 간호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인 신입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적 시기의 학생들로서, 이 시기 동안의 인성 교육은 간호직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 성향 및 대인관계의 정도를 높이며, 훗날 간호사가 되어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과 전인간호를 실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⁵⁾.

인성(人性)이란 ‘사람의 성품이자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으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인품, 인격, 기질, 성격, 인간성, 사람됨됨이, 인간의 본성, 생태적으로 타고난 심성 등이 있다⁶⁾.

교육과학기술부(2010)⁷⁾에 따르면 인성과 관련된 행동특성으로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

려, 소통, 협동 8가지가 있으며, 교육부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보고서에는 예와 효 대신에 자아존중감과 공감이가 포함되어 있다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으로서 인간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인성은 환자간호에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⁵⁾⁸⁾, 간호사도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간을 간호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만한 인간성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부합된 바른 인성은 매우 중요하다⁸⁾.

인간행동 특성에 중요한 정의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적 태도로서 비교적 지속적인 인간의 성격의 특성을 의미한다⁹⁾. 높은 자아존중감은 건전한 인성 발달을 가져오며, 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인 교육활동과 훌륭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¹⁰⁾.

그러나 바른 인성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의료인이 되어 환자에게 전인간호를 실천할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대학 입학 시기 때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여러 상황의 간호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가치감을 갖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교육 현장에서 대학생의 인성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대한 강조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대학생 혹은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대한 연구¹⁾³⁾¹¹⁾¹⁶⁾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국내외 모두 인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의 크기에 비해 인성 수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인성과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교과외활동으로 인성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¹⁵⁾. 단편적인 교육만으로 인성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내용과 방법면에서 충분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으며, 개인의 인성이 자아존중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인

성이 어떠한지, 이들의 인성이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고찰해봄으로써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의료인의 일원으로 바른 인성을 가지고, 전인간호를 실천할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에 필요한 인성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 및 자아존중감을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3. 대상 및 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 및 자아존중감을 확인하고,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지역 2개의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신입생 250명 중에서 입학 후 인성과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 237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7 program에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f)=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0, 예측변인의 수 10개로 했을 때 최소 표본의 수는 141명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 237명은 적정 표본수를 충족하였으므로, 통계적 검정력에 문제가 없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12일간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대상으로 선정한 대학의 학과장의 허락을 구한 후,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부하여 전량 회수되었으며, 이 중 설문응답 내용이 부실한 13부를 제외한 237부(총 회수율 94.8%)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내용, 연구절차,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과 비밀 보장, 자료의 활용 범위, 자발적 연구 참여와 거부, 연구 참여 도중 중도 포기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대상자들에게 연구에 대해서 설명시에도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설문지 응답에는 15분-20분이 소요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3.3. 연구도구

1) 인성(Personality)

인성이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본성이며, 더불어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심성과 인격 및 행동특성을 말한다³⁷⁾. 본 연구에서 인성은 Kim²⁾ 이 개발한 '대학생용 인성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예(5문항), 효(5문항), 정직(5문항), 존중(5문항), 소통(3문항), 배려(4문항), 협동(5문항), 책임(5문항)의 8개 영역, 총 37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및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²⁾ 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는 .92이었다.

2) 자아존중감(Self-Esteem)

Rosenberg¹⁷⁾가 개발하고, Moon 등¹⁸⁾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문항 5문항은 역환산으로 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Moon 등¹⁸⁾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3.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변수에 따라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분석은 Duncan’s test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인성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인성 및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9.27 ± 3.86 세이었으며, 20세 미만이 76.8%(182명), 20세 이상이 23.2%(55명)이었다. 대상자의 종교는 ‘무’가 66.2%(157명)이

었고, 지각하는 가정 경제 상태는 ‘보통’이 62.9%(149명)이었다.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57.0%(135명)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지각하는 대인 관계 또한 ‘좋은 편’이 60.8%(144명)이었다. 지각하는 성격은 ‘보통’이 57.0%(135명)이었으며, 환경 적응력은 ‘높은 편’이 55.3%(131명)이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보통’이 65.8%(156명)이었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7.3%(112명), ‘보통’ 40.1%(9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인성은 지각하는 가정경제상태($p=.008$), 지각하는 대인관계($p=.006$), 학업 스트레스($p=.002$), 전공 만족도($p=.01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지각하는 가정경제상태($p=.026$), 지각하는 건강상태($p=.024$), 환경 적응력($p=.007$), 전공 만족도($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2. 대상자의 인성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인성 관련 특성은 (Table 2)과 같다. 대상자의 67.1%(159명)이 대학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배려와 나눔 의식 부족으로 인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점으로는 37.1%(88명)의 대상자가 ‘다양한 인성교과목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인성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주요 덕목은 ‘배려’가 38.4%(91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존중 21.1%(50명), 책임 11.4%(27명), 예 8.0%(19명) 순이었다.

Table 1. Comparison of persona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ersonality		Self-esteem	
			Mean±S.D.		Mean±S.D	t/F(p)
Age	< 20	182	4.01±0.66	-1.142(.295)	3.89±.076	1.758(.084)
	≥	55	4.06±0.91		3.82±.091	
Religions	Have	80	4.02±0.46	-0.40(.968)	3.86±0.83	-.201(.841)
	Don't have	157	4.03±0.49		3.89±0.84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Good ^{a)}	40	4.32±0.39	4.913(.008)	4.04±0.75	4.818(.026)
	Moderate ^{b)}	149	3.99±0.50	(a>b,c)	3.83±0.63	(a>b,c)
	Bad ^{c)}	48	3.94±0.43		3.80±0.85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a)}	135	4.06±0.51	2.692(.070)	3.91±0.84	3.178(.024)
	Moderate ^{b)}	92	4.00±0.44		3.85±0.75	(a>c)
	Not healthy ^{c)}	10	3.94±0.71		3.76±0.74	
Perceived interpersonal relations	Good ^{a)}	144	4.08±0.50	5.284(.006)	3.89±0.77	.266(.791)
	Moderate ^{b)}	91	3.88±0.42	(a>b,c)	3.87±0.81	
	Bad ^{c)}	2	3.71±0.19		3.79±0.83	
Affect	Positively	81	4.06±0.43	2.929(.055)	3.87±0.62	2.257(.106)
	Moderate	135	4.01±0.51		3.88±0.84	
	Negatively	21	3.98±0.41		3.87±0.85	
Adaptability in Environmental	Highly ^{a)}	131	4.05±0.46	.456(.634)	3.88±0.73	7.791(.007)
	Moderate ^{b)}	92	4.01±0.51		3.86±0.64	(a,b>c)
	Low ^{c)}	14	3.99±0.45		3.60±0.85	
Academic stress	Don't have ^{a)}	26	4.22±0.41	6.549(.002)	3.87±0.81	2.345(.360)
	Moderate ^{b)}	156	4.01±0.49	(a>b,c)	3.89±0.79	
	Have ^{c)}	55	3.98±0.47		3.81±0.78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Too satisfy ^{a)}	30	4.23±0.32	4.098(.018)	3.91±0.81	7.734(.001)
	Satisfy ^{b)}	112	4.00±0.42	(a>b,c)	3.87±0.79	(a,b>c)
	Moderate ^{c)}	95	3.95±0.56		3.62±0.77	

a, b, c ; Classification of Duncan test

Table 2.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Why do we need personality education in college?	Individualism tendency (lack of consciousness and sharing)	159	(67.1)
	The loss of humanity, such as an increase in crime	14	(5.9)
	Entrance or knowledge-based education	29	(12.2)
	Confusion of values caused by materialism	12	(5.1)
	To become a talented person	21	(8.9)
Need to improve to activate personality education	Other	2	(0.8)
	Development of various personality subjects	88	(37.1)
	Professor's interest and enthusiasm	28	(11.8)
	Reduction of attendance	10	(4.2)
	Activate counseling with advisor	53	(22.4)
	Improvement of volunteer activities	25	(10.5)
Main virtues to be raised through personality education	Encourage participation in school events	26	(11.0)
	Other	7	(3.0)
	Manners	19	(8.0)
	Filial piety	4	(1.7)
	Honesty	15	(6.3)
	Respect	27	(11.4)
	Communication	50	(21.1)
Consideration	91	(38.4)	
Cooperation	18	(7.6)	
Responsibility	13	(5.5)	

4.3. 대상자의 인성 및 자아존중감 정도

대상자의 인성 및 자아존중감 정도는 (Table 3) 과 같다. 대상자의 인성 수준 정도는 5점 만점에 최소값 2.86점, 최대값 5.00점, 평균 4.03±0.57점 이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예’의 평균이 4.26±0.55 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통’ 4.13±0.69점, ‘배려’ 4.05±0.69점, ‘책임’ 4.02±0.66점, ‘효’ 3.96±0.75점, ‘협동’ 3.90±0.67점, ‘존중’ 3.85±0.73점, ‘정직’ 3.75±0.85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5점 만점에 최소값 2.50점, 최대값 5.00점, 평균 3.87±0.84점이었다.

Table 3. The level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Item	Min.	Max.	Mean±S.D.
Personality	Manners	5	2.60	5.00	4.26±0.55
	Filial piety	5	1.40	5.00	3.96±0.75
	Honesty	5	1.00	5.00	3.75±0.85
	Respect	5	2.40	5.00	3.85±0.73
	Communication	3	3.00	5.00	4.13±0.69
	Consideration	4	3.00	5.00	4.05±0.69
	Cooperation	5	2.80	5.00	3.90±0.67
	Responsibility	5	3.00	5.00	4.02±0.66
	sub Total	37	2.86	5.00	4.03±0.57
	Self-esteem	10	2.59	5.00	3.87±0.84

4.4.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인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각하는 가정경제상태, 지각하는 대인관계,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를 더미 변수로 전환한 후 포함시켰으며, 연속변수인 대상자의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식에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2.106로 0-4범위에 있고, 기준 값 2에 가까우 자기 상관성이 없었고, 공차한계가 .148~.833로 0.1이상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도

1.058-1.200로 기준치(10)를 넘지 않아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검정결과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고,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000-.043로 1.0을 초과하는 값은 없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와 같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 예측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8.776, p<.001), 예측모형의 Adjust R² 값은 .188로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설명력은 18.8%이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성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 in personality of the participants (N=237)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323	.444		5.232	<.001
Self-esteem	.440	.105	.340	4.177	<.001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056	.102	.040	.552	.582
Perceived interpersonal relations	-.114	.088	-.107	-1.291	.199
Academic stress	-.237	.096	-.176	-2.460	.055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011	.059	-.017	-.189	.850
Age	-.058	.066	-.057	-0.881	.379

Adjusted R² = .188, F=8.776 p<.001

* Dummy variables: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Good=0, Moderate=1, Bad=2)
 Perceived interpersonal relations(Good=0, Moderate=1, Bad=2)
 Academic stress(Don't have=0, Moderate=1, Have=2)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Too satisfy=0, Satisfy=1) Moderate=2)

5.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 및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인성 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결과 대상자들의 인성 수준은 4.03 ± 0.57 점(5점 척도)이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예’의 평균이 4.26 ± 0.55 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직’이 3.75 ± 0.85 점으로 가장 낮았다. 인성의 평균 점수를 포함한 하위 영역별 점수는 Kim²⁾이 개발한 인성 척도를 이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Kim¹⁹⁾에 따르면 철학자 흄의 윤리이론에서 하나의 덕으로서의 정직은 정직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여건에서 형성되는 성품특질 또는 인격특질로, 정직이 갖는 이러한 성격 때문에 흄의 관점에서 질병의 치료와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제일의 덕목은 선행의 원칙이라 하였다. ‘정직’을 자신의 마음에서 거짓이 없고 꾸밈없는 바르고 곧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의료인의 일원이 될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라고 하기에는 본 연구의 점수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인성 관련 특성에서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주요 덕목을 대상자들은 ‘배려’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 교육의 내용에는 ‘정직’과 ‘배려’가 포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례나 근거를 기반으로 한 연구나 역할극 등을 통해 그 의미를 찾아가는 등 방법 또한 다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3.87 ± 0.44 점으로, 이는 Jung 등의 연구²⁰⁾에서 3.64 ± 0.44 점, Oh 등의 연구²¹⁾에서 3.63 ± 0.42 점과 비슷하였다. Rosenberg¹⁷⁾는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아존중감이라고 정의하며,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²⁰⁾. 특히 간호사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궁극적으로 환자 간호의 질 향상 및 임상현장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⁸⁾.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지각하는 가정경제상태, 지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⁸⁾¹⁵⁾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였다.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변화되는데, Kang²²⁾과 Kim²³⁾는 청소년의 인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에서 자기이해, 자기수용과 자기개방 등을 기본으로 자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며 개방하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성 교육내용 구성 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경제상태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사회적, 교육적인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설명력은 18.8%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인성은 지각하는 가정경제상태, 지각하는 대인관계, 학업 스트레스, 전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Lee와 Nam¹⁵⁾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대학졸업 후 인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의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예비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인성 덕목은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윤리의식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Kim²⁴⁾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Park²⁵⁾은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올바른 이해와 자존감을 갖게 하며, 공감적 이해와 타인을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Katz²⁶⁾은 인성교육을 시민정신, 타인에 대한 존중, 자기에 대한 존중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미국에서 인성교육은 정직함, 자아존중감, 책임감과 같은 핵심적 덕목을 대중에게 이해시키고, 배려심을 갖게 하며, 도덕적으로 민감하게 행동하는 성향을 신장

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⁴⁾. 다시말해서 인성 교육은 인간다운 면모와 자질을 갖추기 위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증진하며, 올바른 가치에 대한 교육, 도덕 교육, 인격 교육, 시민성 교육을 기르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²⁵⁾. 즉, 간호대학생의 신입생의 인성에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이 필수적이므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자아존중감은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나, 그 설명력이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문헌을 고찰, 인성 관련 변수를 분석하여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 및 자아존중감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의료인의 일원으로 환자의 건강증진과 전인간호에 이바지할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사로 성장하기에 필요한 인성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은 지각하는 가정경제 상태, 지각하는 대인관계, 학업 스트레스, 전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자아존중감의 인성에 대한 설명력은 18.8%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 신입생들은 인성 수준을 높여 바른 인성을 가지게 하려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지역의 두 개 대학의 간호학과 신입생들로서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지역적, 환경적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국내 다른 지역, 다른 학년 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후속 연구의 시행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직’과 ‘배려’가 포함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며,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및 인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Kim M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Assessing Caring-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2018.
2. Kim SJ. Development of the Character Scale based on the Main Pillars of the ‘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2017;11(3):217-258.
3. Park IS. Reconsideration of Character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and Character Practice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University, 2017.
4. Park EM.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contents, 2012;12(7):497-509.
5. Yeom EY, Moon HK.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Importance of Personal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7(12):691-701.
6. Hyun J, Choi SG, Cha SH, et al. Research Analysis on the Condition of School's Character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R, 2009;09.
 7. Fostering Talent through Harmony of Creativity and Consideration: Basic plan for Creativity Personality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Scient and Technology, 2009;12.
 8. Hong SH. A Study on the Personality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2.
 9. Kim MH, Jeong MY. Job Satisfaction and Influential Factors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2;18(2): 81-87.
 10. Park SH. Relationships among Sense of Calling to Teaching, Self-Esteem, and Character of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14(10):285-304.
 11. Kim BJ, Jeon EY. Exploration of Development and Applicability of a Classics Book Reading Program as Character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contents, 2016;16(10):676-686.
 12. Park J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rse's Character Scale for Care in Clinical Setting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22(2):137-151.
 13. Won MS. A case Study on Practical Personality Education in University: Barom Personality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Conference, 2015;12:25-45.
 14. Lee MR, Gwak YK.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7(7):491-499.
 15. Lee MR, Nam MH. Personalit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7(6):427-437.
 16. Lee JH. An Inquiry into University Freshmen's Experiences and Their Awareness on Humanity Educ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2016;10(2):219-250.
 17.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s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347.
 18. Moon H, Jung MJ, Kim JY.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1;19(3): 253-260.
 19. Kim DS. Hume's Medical Ethics and the Virtue of Honesty. The Institute of Chun-Ang Philosophical Studies, 2019; 53:1-26.
 20. Jung HY, Lee KS.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Mental-Health and Suicidal-Ide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5;3(2): 328-339.
 21. Oh EJ, Kang HS.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Nurse's Image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Freshman. Asia Culture Academy of Incorporated Association, 2017;21;8(5):745-760.
 22. Kang MS. The Effects of Brain Education Humanity-Program on the Self-Esteem and Ego-Identity of Teenag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2012.
 23. Kim MH. A study of the effects creativity and personality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 Dissertatio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2017.
24. Kim YE.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o Prevent Child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2012.
25. Park SJ. Development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al Program for Prospective Infant Teachers and its Eff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2013.
26. Katz LG. Child Development Knowledge and Teacher Preparation: Confronting Assump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96;11(2);135-146.